

# 特殊學校(精薄)建築의 計劃과 設計(後)

Planning and Design of Feeble-Mindness School

- 計劃上的 條件, 課題, 그리고 解決方案에 대하여 -

朴勇煥 / 漢陽大學校 工大 建築科 教授  
by Park, Yong-Whan

## □ 머리말

前編을 통하여 우리나라 특수교육에 관한 현황 가운데서 특히 시설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계획상의 일반적인 문제점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본 후편에서는 전편에 이어 특수학교에 대한 건축계획상의 조건 및 과제, 그 해결방안에 관하여 설명하고 구체적인 실례로써 작년말 문교부에 의하여 추진되어 온 국립특수학교(정박)의 기본계획안을 소개하기로 하였다.

## 1. 계획상의 전제조건

- 기존의 특수학교의 종류로써는 精薄, 盲, 聾, 肢體兒를 위한 학교가 있으며 각각의 학교는 시설설계상 장애의 종류에 따라 세심한 유의가 필요하다. 특히, 精薄의 경우는 단순정박이외, 뇌성마비 등의 지체를 동반하는 重複障礙兒들의 출현이 많으므로 건축적인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 幼稚部에서 高等部까지의 各 部別 설치형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치부는 早期教育을 위하여, 그리고 고등부는 중학부까지 수료한 아동들의 교육에 필요한 제반시설의 정비, 구체적으로 말하면 職業輔導關係, 特別教室 등에 관하여 事前에 各 部의 설치여하에 따라 소요되는 면적 및 설비 등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학교의 면적은 學級數 여하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의 총학급수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1학급당 아동수는 教育法上으로는 15명이하로 되어 있으나 重度·重複障礙의 아동이 다수있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는 기준보다 훨씬 적어져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精薄의 경우 학습이나 생활이 학급단위 중심으로 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와같은 점은 일반학교의 경우와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다음에 兒童數의 정확한 파악은 실제로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다. 기존의 학교를 보면 매년 입학하는 아동수는 반드시 일정하지는 않다. 그리고 障礙程度의 차이 역시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대상아동수를 가급적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실태조사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통학권이 廣域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으로 생각되므로 예상 통학권 내의 人口數에 대한 出現率에 의하여 개략적인 아동수의 파악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 計劃段階에서 障礙의 種類, 程度를 파악하는 일은 계획의 출발점이며서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생각된다. 의무교육이 본격화되면 현재보다도 더욱더 장애의 종류나 정도가 다양화되고 重度·重複障礙兒童의 취학율이 급증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소아마비가 감소하고 뇌성마비의 증가로 肢體不自由와 精神薄弱을 증폭하는 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선편학교의 경우는 물론, 기존 특수학교 전반의 시설정비가 절실하게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計劃段階에서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둘 필요가 있다.

• 가정, 기숙사, 시설 등에서 통학은 特殊學校의 종류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다르게 마련이다. 기숙사를 설치할 경우는 기본계획의 방향을 크게 좌우하게 되므로 그 규모와 함께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精薄兒의 경우는 야간의 생활을 돌보는 일이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기숙사의 설치는 가급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 선진국에서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기숙사를 설치하는 예가 드물다. 물론 이점은 通學圈과 깊은 관계가 있고 지역의 특수학교가 골고루 분포할 경우에는 불필요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통학권이 전국적으로 미치고 있음을 생각하면 기숙사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통학버스의 臺數는 계획상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차면적, 위치, 기사휴게실 및 대기실 등 所要室의 누락이 없도록 한다.

• 특수학교는 學區가 없는점, 施設設置 내지는 整備計劃의 수립이 없는점, 의무교육을 향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점 등으로 인하여 특수학교의 계획 및 설계상 중점을 두어야 하는 對象兒 層의 가정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教育可能兒童을 對象으로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계획상의 前題로 삼지 않을 수 없다. 開校當初에는 전제조건처럼 教育可能級 아동이 主對象兒層으로서 취학이 예상되지만 건축적으로는 重度 내지는 重複障礙의 아동이 장래 취학하게 될 것에 대비하여 설계상 충분히 유의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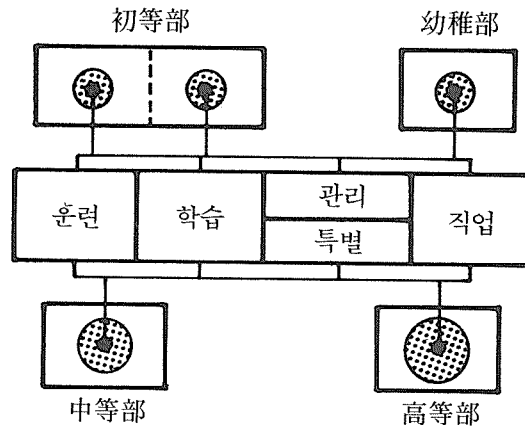
## 2. 계획상의 과제 (I)

- 학교 전체의 구성상, 기본적인 요소로서 작용하는 各部 및 상호관련성에 대한 공간구성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명료한 구분을 요한다. 정박학교는 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 一貫性 있는 교육을 필요로 하고 學級編成方法이 일반국민학교와 동일하게 하기에는 불가능하므로, 즉 學習內容과 學年의 개념이 다르므로 교실의 一列配置의 획일적인 공간구성방법으로서는 도저히 대응할 수가 없다. 따라서 各部가 하나의 공간적인 단위가 될 수 있도록 우선 설정하고 난 다음에 각부내의 내부계획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한다. 이점에 대해서는 各 部別 아동들의 年齡, 발달단계에 적합한 형태로써 Cluster-Type 이 가장 적합하며 그 概念을 圖式化하면 (그림 1)과 같다.
- 教室을 어떻게 집합, 배치하느냐 하는 문제는 각부별 특성을 어떻게 공간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느냐를 좌우하게 된다. 教室中心의 학습·생활교육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특수학교에 있어서도 제도상 學級編制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전연 무관할

◆ 朴勇煥

1944년생. 東京大大學院卒. 漢陽大學校 工大 建築工學科 教授.

〈그림 1〉 部別 空間構成



수 없으나 학급규모가 적고, 아동들의 장애의 종류가 다양하고, 발달단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학급이란 울타리를 벗어나 지도하는 편이 용이하다는 점이 중요시 된다.

현실적으로도 학급단위보다도 학습그룹을 단위로 재편성한 그룹을 중심으로 지도하는 학교가 드물지 않다.

따라서 정박학교에서는 교실을 필요수만큼 나열시킨다고 해도 실제의 사용상 적합하지 않음은 물론이며 지도상의 어려움만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실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部全體의 Open Space 를 학습공간으로 우선 확보하여 이 면적을 필요에 따라서 분할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다.

학습그룹의 크기는 학급과는 달리 部全體가 함께 모일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학년 구별없이 모이는 그룹도 있으며, 적은 인원의 소그룹이나 개인지도를 할 때도 있다.

따라서 학습공간에 요구되는 기능은 무엇보다도 大, 中, 小 어떠한 規模에도 轉用될 수 있는 공간의 융통성이 중요해진다.

- 各部別로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室은 中央化하는 것이 유리하다. 도서실, 시청각실, 자료실, 정보실 등은 各 部로부터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학교의 규모가 클 경우는 유치부 및 초등부 저학년들을 위해서는 따로 설치하는 것도 좋으며, 음악, 미술, 공작, 과학실 등 특별교실 역시 群으로 집합하여 학교의 중앙부에 두어 초등부 고학년 이상의 아동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각종 훈련실과 시찰, 검사, 진단실 등은 서로 성격이 다르지만 인접, 배치시키는 것이 좋으나 前者는 Open Space 가 필요한 반면, 後者는 차별한 분위기를 필요로 한다.

- 특수학교의 敎職員은 학교의 규모에 비하여 직원수가 많으므로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는 분산 배치하는 경우가 있다. 또 각부별로 중앙에 교직원실을 두고 관리부에도 교직원실을 두는 경우가 많다. 障兒의 교육은 휴식시간이 특별히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中央化하는 것 보다는 分散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이와같은 경우 管理部에는 敎師全員이 모일 수 있는 會議室이 필요하다.

### 3. 계획상의 과제(II)

- 一般學校에서처럼 어린이의 놀이행위를 위한 공간적인 대응이 갖는 계획상의 의의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特殊學校에 있어서는 그것이 단순히 놀이행위로만이 국한된 것이 아닌 학습의 연속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신적인 발달이 未分化 段階에서는 놀이와 학습이 분명히 구분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놀이가 학습과 一體化되므로 놀이의 종류에 따라서 적합한 코너, 활발하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차분하고 아늑한 공간 등 다양한 놀이의 형태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유치원과 다른점은 정박아의 경우 천천히 책을 본다든지 이야기에 몰두하여 듣는다든지 하는 일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차이는 幼兒와 兒童의 人體치수, 動作치수로서 이 점은 충분히 주의해야만 한다.

또 물장난, 모래장난, 놀이기구를 이용한 장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물과 모래의 遊具의 設備가 필요하며, 실내에서 실외로 맨발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넓은 테라스와 잔디가 교실 바로 앞에 있어서 수시로 다닐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다.

- 精薄兒의 敎育은 국어라든지 산수 등의 각 교과를 따로따로 가르치지 않고 교과를 한꺼번에 가르치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敎科와 特別活動, 訓練 등을 함께 가르칠 수가 있다.

이와같은 지도형태의 대표적인 것이 生活學習으로서 생활에 필요한 일을 실제 경험을 통하여 학습시키는 지도형태를 말한다.

初等部에서는 특히 저학년에서 이와같은 形態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초등부 저학년에서는 「손을 씻는다」, 「용변을 본다」 등의 身邊처리 그리고 구두, 가방, 모자, 옷 등을 스스로

챙기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확립시키기 위하여 되풀이 하여 지도하는 점을 생각하면 교내 모든 가구, 설비, 화장실 등이 실제로 학습의 장이 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作業學習은 주로 중~고등부의 敎育내용상 중요시되고 실제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다. 이 학습은 사회인·직업인의 육성을 목표로 원예, 인쇄, 블록, 목공, 봉제, 도예, 공작 등의 特別敎室이 있는데 「어떠한 室을 두느냐」, 「어떠한 設備를 하느냐」하는 문제는 각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計劃時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4. 기타 설계상 고려해야 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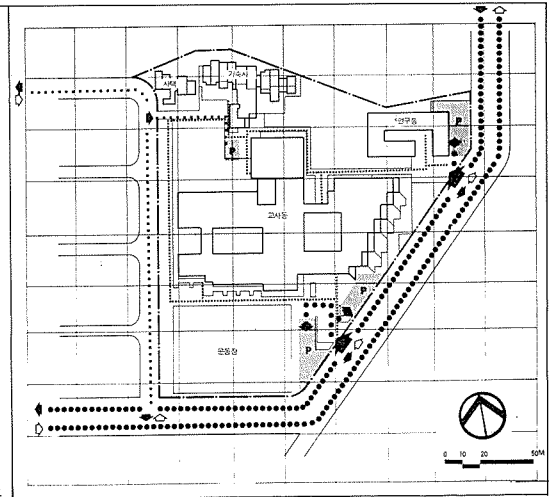
建物内の 動線上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복도, 출입문,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등 Circulation 에 대한 설계상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보다도 치수 및 위치, 그리고 모양, 색채, 조명 등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에 중요한 몇가지의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면,

- 수평동선으로서의 복도는 重度 및 重複障兒를 위하여 Hand Rail, Kick-Plate 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그리고 치수·모양·위치 등에 관해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복도의 폭은 정상인과는 달리 장애아는 직선적인 보행이 어려우므로 최소 3m는 필요하며, 복도내에는 設置門에 의한 돌출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계단의 모양, 치수는 이미 잘 알려져 있으나 계단너비는 27cm 이상, 계단높이는 16cm 이하로 하고 마감재로는 목발사용자에게 미끄럽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Hand Rail 은 저학년에서 고학년까지의 아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모양과 치수로 해야 한다.

- 傾斜路는 段差해소의 방안으로 많이 설치하는 방법의 하나이지만, 특히 精薄學校의 경우는 학생의 모집과 대상을 정박장애아에 한한다는 점과 비록 重度나 重複障兒가 있다하더라도 교육적인



동선도

관점에서 경사로의 설치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는 하지 못한다. 즉, 생활학습과 훈련을 통하여 스스로 극복할 수 있어야 일반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는 판단과 실제 경사로를 설치한 학교의 경우 아동들의 평상시 및 응급시 엘리베이터나 계단의 이용이 절대적인 점을 고려하면 정박학교의 경우는 반드시 경사로를 두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지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Hand-Rail, 폭, 경사로의 구배에 유의하여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겠다.

- 건물내부에 있어서의 段差는 원칙적으로 두지 않아야 하며 현관출입구 부분에서 신발을 갈아신는 곳의 段差는 가급적 낮게하고 한쪽부분에 휠체어등이 다닐 수 있도록 경사면으로 마감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건물외부의 단차도 가급적 없애는 편이 좋으나 특히, 통학버스의 승·하차시의 높이차이는 승·하차장을 두고 경사로를 두어서 해소하는 편이 좋다.

- 그 밖에 출입문, 화장실 그리고 식당과 敎具 등에 관한 설계상의 문제는 일반장애자를 위한 각종 건축적인 유의사항을 참고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한가지 유의해야할 것은 신체발달에 따른 조건이 치수 및 모양, 위치 등에 대하여 설계상 커다란 요인이 될 수가 있다.

### 5. 國立 特殊學校의 기본계획안

다음에 소개하는 기본계획안은 작년 문교부가 주관한 우리나라 특수교육시설의 건설계획에 따라 漢陽大 工大 産業科學研究所가 위 연구과제를 의뢰받아서 작성 제출한 계획안으로서 '89년도에 건설될 예정이며, 국립 특수학교로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인 개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대지의 위치  
行政區域上으로는 경기도 안산시 반월지구에 위치하고 서울중심 30km 권내이며, 배후도시로는 서울을 비롯하여 인천, 수원, 안양, 과천, 광명,

부천시 등이 있는데 각 지역간 거리는 약 20~40km 정도이다. (그림 2)

- 대지의 형태, 면적 및 주변도로 현황  
대지면적은 23,400㎡로서 사다리꼴 모양의 대지이며 대지의 3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다. 대지의 남동에서 남쪽에 걸쳐 시설녹지 및 절대녹지가 넓게 펼쳐져 있고 대지의 정북에는 공원으로 지정된 동산이 있으며 서쪽에는 주거단지의 예정지가 있어 소음, 向, 전망 등의 최적의 입지조건이라 할 수 있다.

대지와 인접하는 타 건물은 없기 때문에 대지내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시선거리나 폭이 매우 넓어 대단히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다.

- 건물의 규모 및 요구조건  
계획당시의 소요실 및 규모, 수용인원 등에 관한 조건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표 가운데서 비교적 문제가 되었던 점은 학급당 학생수, 기숙사건물의 규모 및 수용인원, 연구소건물에 대한 개념 등을 들 수가 있다. 우선 학급당 학생수는 정박학교의 경우 현행 관계법상 15인이하로 되어 있으나 외국의 경우에 비하면 2배에 가까운 인원수에 해당한다.

기숙사건물의 설립여부는 원칙적으로는 기숙사를 두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의 시설현황으로 보아서 광역의 통학권이 불가피하므로 설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 수용인원과 대상학생의 선발은 기숙사의 관리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계속하여 과제로 남아 있으며, 연구소건물의 개념은 즉, 연구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이므로 차후 이와같은 문제가 충분한 검토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본계획상의 문제  
이상에서 요약한 대지 및 요구조건에 대한 계획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우선 대지에 관해서는 대지면적이 협소하여 건축면적에 제한을 받으며, 대지의 서측 주택지의

주민과의 사이에 Privacy에 관한 문제 및 특수학교에 대한 의식상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점, 그리고 대지의 3면이 도로에 접해 있어서 차량통행에 따르는 안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점 등을 들 수가 있다. 둘째로 건물배치상 교사동은 건축면적의 제한에 의하여 2층이상의 계획이 불가피한 점과 연구소동은 위치상 독립할 수 있어야 하고 기숙사는 주거공간으로서의 분위기, 타 건물과의 분리, 동선 및 출입구의 독립성 등이 요구되고 강조되어야 하는 점을 들 수가 있다.

세째로 Block-plan의 설정에 있어서 각부별 공간구성이 상호 명확할 수 있어야 하고 네째로, 평면계획상 학습, 지도, 놀이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의 융통성 및 각각의 상호 연관성을 대단히 중요시해야 하는 점과 각부별 아동의 신체조건이 공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치수, 크기, 높이 등에 유의해야 하고 특히 기숙사는 「수용」의 차원에서 탈피하여 주거로써 공간적인 변화가 필요한 점, 그리고 다섯째로 기능상으로는 기숙사의 생활이 학교의 연속이 되지 않도록 기능적인 구분이 필요하고 각종 차량에 대한 동선을 명확히 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계 획 안

• 건물의 개요

- 건축면적;
  - i) 교사동 1층면적 4565.88㎡  
2층면적 5130.88㎡  
지하층면적 700.00㎡  
합 계 10396.76㎡
  - ii) 기숙사 2009.38㎡
  - iii) 연구소 2996.88㎡  
건축면적 14702.82㎡
- 층수; i) 교사동 2층  
ii) 기숙사 3층  
iii) 연구소 4층

- 구조; 교사, 기숙사, 연구소동 : RC造
- 건폐율; 28.56%
- 용적율; 62.83%



여섯째로 건물의 조형상 학교의 전체적인 인상이나 이미지가 차분하고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점. 종래의 「상자」와 같은 모양이나 위엄을 강조하는 식의 느낌을 줄 수 있는 조형은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상에서 언급한 1~6까지의 각각의 문제에 대한 解決方案으로서 우선 첫번째의 대지에 관해서 주택지에 가급적 인접하지 않도록 하고 시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경을 하며, 기숙사는 3개층, 校舍棟은 2개층으로하여 가급적 건축면적을 줄여 외부공간을 확보한다. 특히 운동장은 장애아의 경우 일반학교의 아동보다 더 좋은 환경의 運動施設이 필요하게 되고 넓은 놀이공간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운동장 주위에 잔디광장이나 잔디언덕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동장의 협소문제를 최소화 하기위해 대지의 남쪽면에 접하게 하여 운동장에서 視線을 개방시키도록 계획한다.

그리고 둘째의 배치계획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사, 기숙사, 연구소의 진입로는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대지내에서 기능적으로는 상호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공간적으로는 각각의 건물의 영역이 뚜렷하고 특징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복층의 공원언덕에 인접하여 기숙사등을, 동남측 도로에 학교의 진입도로를 설치하여 교사등을 두고 연구소등은 북동측에 도로와 인접하여 배치한다.

특수학교는 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의 部가 형성되는데 이들 部의 각각의 현관은 분산 배치한다. 유치부 및 초등부는 독립된 영역으로 분리하며, 중·고등부는 身體發達程度에 따라 유·초등부와 분리한다.

교문은 관리상 1개를 설치하며, 교사의 주현관은 교문 가까운 곳에서 장애아가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하여 건물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유치부 및 초등부 저학년의 현관은 교사의 진입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寄宿舍는 住民空間인 점을 유의하여 생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校舍와 분리하며, 교사와 연장이 되지 않도록 전용출입구, 놀이터, 정원 등을 두어 하나의 독립된 생활공간으로 규정한다.

장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람과 차의 동선을 완전히

분리한다.

세번째의 Block-plan 에 있어서는 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의 기능적인 요구로 인하여 각 부별 건물이 내·외부의 공간을 분리 또는 독립된 영역으로 Grouping 한다. 각 부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개별 및 집단학습 등 다양한 學習集團 편성이 대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그리고 治療關係室은 主治療對象이 유·초등부이나 중·고등부에 重度障礙者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교사의 중앙부에 두는 것으로 고려하고 양호, 훈련, 검토, 진단, 상담의 기능을 근접시켜 치료동선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직업보도실은 주로 중·고등부 학생이 대상이므로 중·고등부 교실에 인접시키며, 운반 및 원료의 반입등의 외부 차량동선을 고려해 1층에 실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기타 관리부분은 각 부별로 분리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교직원의 관리 및 운영상 문제점이 다르므로 교사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배려한다. 또한, 각 부별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도서, 자료, 시청각실등은 中央化하여 전체 교원 및 아동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배려한다.

네째의 평면계획상으로는 정박아동의 장애아의 학습은 개인간의 능력차로 인해 학습단위의 지도보다 학습그룹의 지도가 교육의 효과가 크다. 이러한 학습단위의 크기는 몇명에서부터 부 전체가 모이는 경우까지를 감안, 다양한 學習 Pattern 에 대응하기 위해 교실간의 칸막이 벽을 간이 칸막이로 처리하여 학습공간에 융통성을 부여한다.

특히 유·초등부의 교실내·외 공간에도 놀이 행위의 중요성에 비추어 교실에서 직접 외부로 나갈 수 있게 융통성을 부여한다.

기숙사의 계획에 있어서는 종래의 획일적인 공간배치에 따른 수용의 개념을 지양하고 가정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한다. 기숙사의 계획은 다양한 생활영역을 느낄 수 있도록 平面의 分節을 통해 층마다의 공간계획을 달리한다. 또한, 기숙사의 거실공간을 중심으로 소집단 생활공간에서 개인생활공간으로 세분화하여 단계적인 공간구성으로 고려한다.

다섯째의 기능상의 문제로써 교사동과 기숙사 사이의 連結動線은 불필요한 사람, 차들의 진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기숙사의 관리부분을 독립시켜 현관이 될 수 있도록 하되 공간적으로는 주거공간의 특징을

유지하도록 한다.

건물내의 수직동선에 대해서는 특수학교 이용자들의 특성때문에 장애아들에 대한 수직동선은 건축적으로 충분한 배려를 해야하며 비상시를 대비하여 최단거리로써 外氣에 접하도록 한다.

건물외부에서 교사와 기숙사로의 학부모의 방문, 통학버스, 서비스차량, 응급환자등의 수송관계차량, 사람들의 동선등 모든 수평동선은 명확히 설정하여야 하며 방문자들의 차량은 진입로 부근에 둔다.

마지막으로 건물의 조형면에서 보면 건물의 성격상 수직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수평성을 강조하고, 강한 조형상의 이미지를 추구하기 보다 학교의 성격상 가정적이며 차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조형적으로 고려한다.

그리고, 복잡한 조형은 피하고 경쾌하고 단순한 조형으로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쉽게 인지할 수 있으면서 遠距離造形으로써 강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주제를 설정한다.

광범위한 視線方向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조형의 주제를 검토한다.

## 6. 맺는말

멀지 않은 장래에 장애자의 교육문제가 사회일반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87년의 無償教育의 실시에 관한 법 개정은 지금까지 위편되어 오던 장애자 교육에 대하여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교육에 대하여 필요가 표면화되고 급증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시설에 대한 재정비 및 양적공급이 장애자 교육의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무상교육의 실시 이후에 언젠가 다가 올 의무교육화라든지 현실적인 선진국의 통합교육에서 생각할 수 있듯이, 시설이 단지 量的인 측면에서만 重要視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段階的인 發展計劃, 目標의 設定이 반드시 이를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현재의 일반학교에서 병설하고 있는 특수학급을 보다 활성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 역시 함께 검토되었으면 하고 여겨진다.